

영월 동강에 다녀와서

김 원 학
일간보사

환경 관련 사회활동을 하는 친구와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영월 동강을 찾았습니다. 어떠한 목적도 갖지 않은 채 단지 겨울을 앞둔 동강의 모습을 보려했기 때문에 출발에 대한 부담이 없다보니 당초 출발계획과 달리 토요일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서울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강이 정선에서 시작해 영월에서 끝나지만 동강의 모습만 보는 것보다는 영월 하류의 남한강 모습을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충주호에서부터 강을 따라 영월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괴산(수안보)에서 빠져나온 후 월악산자락을 지나서야 충주호에 갇힌 남한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기를 머금어서인지 충주호를 따라 난 길은 한적하기 그지없어 오고가는 차를 구경하기조차 쉽지 않았으며, 길가에 늘어선 식당들도 손님을 받지 않고 문을 닫아둔 상태였습니다.

충주 권을 지나 단양 권에 이르니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장희나루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배를 타고 단양팔경의 한 자락을 살피려 몰려든 인파는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선착장에서 바라본 충주호는 예술작품처럼 깎아놓은 병풍과 철지난 단풍, 호수가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단양읍을 지나 상류 쪽으로 따라가다 보

면 단양팔경의 하나인 도담삼봉이 눈에 들어옵니다. 멋들어진 경치를 오래도록 감상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주차비를 내야하고, 또 어두워지기 전에 동강에 도달해야 한다는 일념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달리는 차 안에서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른다고 발을 재촉했지만 영월에 도착하기 전에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도 못하고 이들의 일정 중 하루를 까먹은 것입니다. 날이 무척 짧은 계절이라는 것을 너무 간과한 탓입니다.

이튿날 영월읍 숙소 근처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를 사진에 담은 후에야 진짜 동강둘러보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동강의 최고비경이라는 어라연을 향한 걸음부터 의도했던 계획과 달리 빠져버렸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가 경로를 수정한 후에 겨우 도착한 어라연에서는 전체 3시간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트레킹 코스 가운데서 40~50분 정도 소요되는 곳까지만 접근했다가 이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트레킹 코스 앞에는 매표소가 있는데 주민지원금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주민지원금을 받는 곳은 동강 제장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있는데 그 쪽에서는 사람이 배치되지 않았더군요.

어라연에서 강을 따라가려는 욕심이 또 다시 여정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산을 넘어 문산리라는 곳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강을

따라 오르는 길은 없었습니다.

어라연에서 문산리로 가는 도로는 산을 타고 올라야 하지만 현재는 터널을 뚫어 단축시키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동강이 더 이상 오지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곳곳에 들어선 펜션이나 숙박시설 또한 이를 실감케 합니다. 전날 묵었던 영월의 휘황한 모습도 예전에 스쳐 지나던 때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라연에서 문산리로 넘어가는 산등성이 길은 터널이 뚫리면 이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길가에 세워둔 해학적인 모습의 장승이 눈에 선합니다. 돌아오긴 밤길에 들렀던 박달재 또한 터널이 생기면서 한적하기 그지없었는데, 박달재 정상의 휴게소에 세워진 나무 조각상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시다. 미시령도 그렇지만 친환경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터널 건설이 부쩍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그 효용가치가 폭락한 기존 도로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문산리에서 어라연 부근으로, 다시 영월로 되돌아온 후 먼 길을 돌아서야 문산리와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제장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강댐 건설로 한창 논란이 일 때, 그리고 내셔널트러스트운동에 따른 보전지역 지정 등으로 논의가 진행될 때 찾았던 제장마을은 웬지 북적거린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들렀을 때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되묻기라도 하듯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동강 변에 늘어진 래프팅 관련 간판들을 볼 때 계절의 탓이라 여길 뿐이었죠.

한적한 마을의 모습만 확인하고 동강을 따라 상류를 향해 또다시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곳부터는 강을 따라 만들어진 길이 정선까지 이어집니다.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편하게 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정이지만 포장된 강변도로는 동강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자연보전 사이의 괴리에 대해 잠시 고민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정선읍을 지나 강을 따라 오르다보면 오대산 국립공원 줄기에서 내려오는 오대천과 아우라지 쪽에서 흘러오는 골지천이 만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이 동강의 시작점입니다. 이곳의 물은 영월에서 주천강(서강)과 만나 남한강이 됩니다.

동강 시작점에서 차를 돌려 영월의 선돌로 향했습니다. 골지천 상류의 아우라지에 둘러보고도 싶고, 정선 5일장에서 메밀전병으로 요기도 하고, 친구가 좋아하는 약과도 사오고 싶었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군요.

바쁘게 차를 몰았지만 선돌에 이르기 전에 해는 서산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겨울의 해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두르다보니 결국 계획을 실행에 제대로 옮기지도 못하게 되고, 일정 또한 꼬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행 후 되돌아보니 아쉬운 점이 송곳처럼 도드라집니다.

그래도 조금증을 가라앉히니 나뭇의 맛과 맛을 찾을 수 있더군요. 여유를 찾고 선돌에서 바라본 하늘에서는 별이 쏟아져 내렸으며, 과거 낮에 선돌에서 봤던 서강의 비경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돌을 지나 장릉과 보덕사를 거쳐 청령포에 다다랐습니다. 서강을 사이에 두고 30미터 정보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비운의 단종이 유배됐던 그곳으로 발길을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강가에 놓인 유람선 곁에서 넘을 수 없는 건너편 강가를 바라보며 동강여행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동강 보전을 위해 댐 건설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국민들뿐만 아니

라 주민들 사이의 의견충돌도 컸습니다.

이후 영월이며 동강 주변에는 도로가 새로 뚫리고, 정비되고 있으며, 숙박시설과 래프팅 시설이 들어서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댐 건설 계획 이전과 논란 그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현재의 동강 모습이 그들이 원하던 것과 얼마나 가까울지 사뭇 궁금해집니다.